

매튜슨 성경 이야기 5강 – 사도행전과 바울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Dave Mathewson 박사의 성경 이야기에 대한 6번 강의 중 5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는 바울서신을 다루면서 바울서신을 통해 땅, 언약, 성전, 그의 백성, 왕권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브 매튜슨 박사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의 줄거리라고 부르는 것,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인류와 우주 전체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일종의 기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 언약의 주제, 창조와 땅의 주제, 성전의 주제, 왕권의 주제라는 다섯 가지 상호 연관된 주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하고 성취되는지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러한 주제들이 복음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주제들을 성취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 너머를 바라보고 그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흘러가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종말론적 구원의 비전에서 궁극적인 절정과 성취를 찾는지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와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생각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스도가 이러한 약속, 스토리라인의 주요 주제 및 요소를 성취하는 열쇠라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주제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안에서도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두 번째 구별은 이러한 약속과 주제의 최초의 성취와 최종적인 성취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종종 부르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종말론과 완성된 종말론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이 이 다섯 가지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인 교회를 통해 이미 이 긴장의 일부에서 시작되지만, 미래에는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때,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이 주제들은 이 긴장의 이미 측면인 완전한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측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 21장의 종말론적 완성과 마지막인 아직 아닌 측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에서는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복음서에 이어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경우 반드시 다섯 가지 주제를 분리하여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약성경 저자들의 주요 임무는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이 이 이야기를 가정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신약성경을 거쳐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르고 이제 나머지 신약성서 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고 싶은 곳은 사도행전 1장과 8절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주여, 그것이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구약성서에서 예언서가 끝나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제가 이 구절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가정에서 시작하여 퍼져나가는 전도 방법에 대한 선교적 전략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든 문구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공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회복 약속,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새 언약, 새 창조 안에서 그의 백성, 그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회복 약속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책 전체에 대한 서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구약의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교회 확산과 복음 확산 가운데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증인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의 이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 이 증거가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은 다시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확장될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종의 계획적 진술로서 구약성서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자는 왜 사마리아를 언급하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도 포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인 사마리아가 예언적 기대의 성취로 연합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회복되고 있어서 이제 땅 끝까지 구원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회복 계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본래 뜻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보아온 이 이야기의 음을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엮어냅니다.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려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암시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연설을 읽을 때,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의 연설에서 2장을 가끔 읽고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상황이 다윗 왕과 관련된 본문과 몇 번이나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전 이미지, 새 언약 이미지에 대한 더 많은 주제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도행전 1장의 끝 부분에서 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1장의 결론 구절에 나오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는 이야기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교회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연히 제시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후계자, 즉 12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하신다면, 복음서에서 유다가 탈북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12번째를 선택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12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12제자, 12사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도행전 1장 끝부분에서 사도 12번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12자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의 기반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왜 누가가 12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2사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복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주제인 오순절 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 언약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로 돌아가서, 심지어 에스겔 36장과 3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새 언약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동반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Greg Beal은 몇 개의 기사에서 오순절 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성전에 거하시고 안식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도 성전 주제가 있고, 언약 주제와 이스라엘의 회복도 함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날과 성령 부어주심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난다는 사실은 아마도 우리가 에스겔과 이사야와 같은 본문에서 순례 여행에 대해 본 구약의 예언적 기대를 반영할 것입니다. 사람들 또는 유배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다윗 왕조의 통치와 성령의 부어짐,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Richard Baucom은 그의 최근 책 중 하나에서 오순절이 오순절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일이라기보다 디아스포라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 즉, 포로로 인해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시작, 즉 이미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참고 사항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특정 사건이 설명된 후 자주 설명하는 작은 캡션과 교회의 성장 및 수가 증가했거나 많은 제자가 추가되었다는 이러한 종류의 업데이트 또는 알림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나는 성장과 증가를 강조하는 그 문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른 형상을 지닌 다른 것들로 땅을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그것은 또한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다는 주제, 즉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주제(출애굽기 1장)를 선택하여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을 곳인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성취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그 수많은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일련의 기나긴 선교 여행의 끝에서 끝나며, 그 범위가 넓어져서 바울은 로마에서 끝나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끝나고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이 로마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진행되는 내용은 첫 두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고, 새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왕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성취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므로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땅 끝까지, 즉 로마 제국까지 뻗어 나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그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복음이 나가는 더 큰 결심과 온 땅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도.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이 어떻게 스토리라인의 연속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설립이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시작되는 계속되는 단계, 즉 복음서의 계속되는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의 성취.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중 일부는 이제 그들의 서신을 특징으로 하고 그들의 글은 나머지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부터 지배적인 인물 중 한 명이며 곧 어떤 의미에서 나머지 장면을 지배하게 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글을 보고 특히 이 이야기의 다섯 가지 주제가 어떻게 바울에게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주로 이미 시작된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러한 주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 등을 언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도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특히 새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횡수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구원의 약속은 새 언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언약의 존재와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계속 가정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새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에 대한 언급을 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인침을 받음 등 성령과 관련된 모든 언어는 새 언약과 관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다른 텍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과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알아차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곧 읽게 될 이 언어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설교하는 언어는 모두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약속, 곧 회복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에 이방인으로서 나면서부터 할례자 곧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무할례자라 칭하는 것을 기억하라 곧 육체의 할례 곧 육체의 할례니라 사람의 손으로 된 육체를 가졌으니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육체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과 그 계명과 법조문을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려 하심이니 곧 피조물이니라 이사야에게서 나온 새 피조물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둘 대신에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십니다. 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둘 다 한 성령, 곧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의 나머지 두세 구절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몸인 교회로 연합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는 이사야의 회복 약속의 성취로 본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과 하느님 백성의 운명을 이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루는 열쇠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제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은 더 이상 민족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로만 정의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거나 속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분명히 회복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민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기초하여 정의됩니다. 또 다른 열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는 적용에서도

발견됩니다. 새 출애굽의 주제나 모티프를 교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과 7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스라엘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과 7절에서는 뒷받침하겠습니다.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독하고 악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백성을 죄와 죽음과 악에서 구출하고 건져내시며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분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과 13절과 14절의 다른 두 본문에서도 출애굽기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과 구속과 구원의 언어는 출애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출애굽 모티브의 성취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속과 노예 생활과 아들의 신분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의 언어와 공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처음 일곱 절입니다. 내 요점은 이것이다. "...상속자들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한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까지 후견인과 수탁인 아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서 세상의 영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더 이상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를 가정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언어는 이 본문과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이제 회복하고 구원하고 재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백성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읽는 초문화적인 그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글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다시 백성을 절정으로 보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참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함께 거하실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음 주제, 곧 언약의 주제, 즉 새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한 기대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36장, 7장, 예레미야 31장과 같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 언약을 분명히 언급하거나 중요한 새 언약 주제를 포함하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미 말했듯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나는 그가 성령을 언급할 때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성립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은 에스겔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성령은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의 성취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부어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신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즉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바울의 말,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거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또는 다른 기독교인의 언어로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단지 새로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새 언약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 백성이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히 구약의 새 언약 개념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죄 용서에 관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죄 용서는 새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시는 것에 대한 에스겔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새 언약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제거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성립을 가정합니다. 바울이 새 언약을 명확하게 논의하고 새 언약의 언어, 더 일반적으로는 언약의 언어에 의존하는 곳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지는 말고 여기 전체에서 언약의 언어, 에스겔 36장과 37장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 또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에게서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쓴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새 언약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에스겔 36장과 37장.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났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에스겔서에서 말한 새 언약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새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시 그의 언어는 언약의 언어, 특히 바울 사역의 핵심인 예레미야서, 특히 에스겔서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을 가정합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이 새 언약의 사역자시며 시행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즉 문화적, 국가적 장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백성을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시대부터 궁극적으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회복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와 함께 언약의 주제도 있습니다. 백성이 회복되었다면 언약도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언어와 새 언약의 존재와 시작에 대한 많은 신학적 개념에서 힌트를 다시 봅니다. 다윗 왕국 또는 왕권. 마찬가지로 바울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섭정을 통해 피조물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가정하고 때로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서도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 분명히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사무엘하 7장의 성취와 다가오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육체적 혈통과 분명히 연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급될 때마다 일부 영어 번역에는 메시아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급할 때 단지 예수의 이름이나 고유 이름이 아닌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들 중 적어도 많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 왕으로서 그의 명목상의 힘 중 일부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 자신은 로마서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거나 다윗의 자손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명확하게 부르지 않고 그를 다윗의 약속과 연결시키지 않는 곳에서도 바울이 다윗의 본문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분명히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책 전체나 문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요점은 바울이 자신의 여러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주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0-2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재와 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이니라.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제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아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의 발 아래 있는 모든 적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시편 110편과 8편에서 나옵니다. 종종 왕 또는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왕인 왕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권세의 위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위치로 묘사합니다. 권위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높아지신 가운데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의 다윗의 통치, 다윗의 보좌에 앉은 다윗 왕으로서의 그분의 통치는 이제 시편 110편의 성취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시편 110편을 넘어서면 여러분은 시편 8편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시편 110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온 땅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의 하늘과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과 당신이 세우신 달과 별들을 볼 때 두 구절을 건너뛰고 당신이 염두에 두는

인간이 무엇인지 깨닫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돌보는 필사자. 이제 들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즉, 인류는 당신 창조의 절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창 1장). 당신은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22절에서 하늘로 높아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8편의 성취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하늘로 승영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통치뿐 아니라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 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면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통치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적인 통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그들이 실패하여 다윗 왕조를 통해 성취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영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다윗의 왕권 모티브뿐 아니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반적인 왕권 모티브에 대한 다른 암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모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대표한다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 후 두 권의 책인 골로새서 첫 장에서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 주권, 권위,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분 자신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의 이 부분에는 아마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지혜의 모티브가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1장과의 가능한 연관성을 포착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인류는 원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과의 참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되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요 반영이요 대표자이시다. 창조질서에 속한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주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과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을 아담, 그리고 아담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연결시킵니다.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나는 전체 부분을 읽지는 않지만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확장된 비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사실상 그의 죄와 창조의 결과를 이제 새로운 아담이시며 인류와 창조의 새로운 머리이신 예수께서 어떤 의미에서 고치시고 뒤집히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아직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주관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담의 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아마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새 아담으로 분명히 보여지셨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셨으며, 그가 만유 위에 세우실 새 인류와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것들. 또한 로마서 5장의 설명 내에서,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내에서도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몇 번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관하게 되었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확실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주관하리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비교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을 인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참 아담이시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의 백성을 새 창조, 새 인류 안에서 회복하시며, 아담이 행한 일을 뒤집어 아담이 실패했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책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한 후 흥미롭게도 나중에 골로새서 3장과 10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새 사람 또는 새 인류는 원래의 인류를 대체하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명히 연상케 하는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은 온 땅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규율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피조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일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주이신 창세기 1장과 2장을 따라 새로워져 갑니다. 2, 왕권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 저자는 또한 우리가 방금 본 본문인 1장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느니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5절과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창조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인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하나님 우편에 복종하게 하시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섭정,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높아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창조의 본래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왕국, 예수가 다윗의 부섭정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이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총리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체됨으로써 그 일을 합니다.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성전 거처는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한다는 구약의 주제를 끌어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석조 구조물이나 다른 종류의 구조물의 물리적 건물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서는 일관되게 성전 언어가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곧 그의 새 언약의 영을 통하여 지금 거처하시는 이 성전을 백성들이 직접 짓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언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러 오시는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구약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베소서 5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명령대로 적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읽어야 할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2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서 우리는 마지막 두 구절을 잘라냈지만 나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적용한 건물 짓는 가정의 이미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성전 이미지로 미묘하게 전환하고 합쳐지는지 주목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터, 즉 12사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터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이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느니라 너희도 그 안에 있고 안타깝지만 너희도 이 성전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게 더 잘 해석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와 다른 구약의 본문이 성취되는 성전으로 분명히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복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다윗 왕조가 새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또 다른 고전적인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개념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읽혀집니다. 이것은 12절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성전의 회복을 암시하는 금, 은, 보석의 터 위에 건축하면 구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되고 회복된 성전,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구성하는 벽돌과 돌은 더 이상 화강암이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들 자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결에 그토록 열중하는 이유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성서의 정결 개념과 언어를 가져와 이제 그것을 사람들 자신, 즉 교회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창조와 땅이다.

나는 이 언어나 새 창조를 포함한 땅과 창조의 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최종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의 귀환을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우리는 땅을 연상시키는 언어를 많이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땅과 창조에 대한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통해 처음에 성취되었다고 궁극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땅이 왕국에 들어가는 관점에서 보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속(inheritance)이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상속받는 데 사용한 용어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 상속 언어는 Paul에서도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인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4장 1절, 내 요점은 이것이다, 상속자들이여. 미성년자인 한 그들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약속대로 상속자입니다.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상속 언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3.29에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약속인 성령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국을 상속받는 것, 구원의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최초 성취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땅과 창조의 주제에 관해 신약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장 전체를 다 읽고 싶지는 않지만 22-25장, 22-23장, 25장까지가 사실 성령 본문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또 열매 맺는 말은 새 창조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열매 맺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로 회복될 때 선지자들에게서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결실의 언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장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이 여기서 바울의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은 새 창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할 때 약속하신 땅과 새 창조는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새 창조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성취됩니다. 제어 및 기타 여러 가지 기능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 창조 본문을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그 언어는 바로 이사야서 6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다른 두 곳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당신이 새로 창조되었고, 새 마음을 갖고, 당신이 현재의 모습에 비해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개인적인 용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새 창조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더 널리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땅과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이사야의 새 창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도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창조 언어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본문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 8, 9장. 이제 10장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의 만드신 바라 생성 언어에 다시 주목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창조의 약속이 이제 새 피조물이며 새 창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분명히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창조의 성취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우리가 상속받을 구원의 약속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시작된 새 창조로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들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은 종말론의 실현된 측면, 즉 이야기의 실현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측면, 즉 완성, 완성된 종말론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중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기에 그분께서 계시하신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가 차면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하거나 모으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늘과 땅은 창조 언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1장과 10절은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아직 없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며, 언젠가는 온 우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두십시오. 모든 것이 화해되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듯이 그 목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화해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그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되고 그리스도와의 합당한 관계를 찾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다음 섹션에서는 이 다섯 가지 테마가 어떻게 ...